



## 통합형 매뉴팩처에서 선보이는 180 가지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 감상할 수 있는 예거 르쿨트르의 'IN THE MAKING'

매뉴팩처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비하인드 신 영상 시리즈

예거 르쿨트르는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에서 선보이는 180 가지의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단편 영상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다양한 비하인드 신을 촬영한 영상에서 메종이 탄생한 1833년 이래 그랑 메종을 이끌어온 장인들의 무한한 열정을 느끼고 시간을 뛰어넘는 창의성과 매뉴팩처가 추구하는 정확성의 가치를 확인해 보세요.

각각의 영상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워치메이킹 과정을 포함하여 한 가지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In the Making* 영상은 워치메이킹 기술을 마스터한 장인들과 그들의 숙련된 작업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최상의타임피스를 구상, 제작, 조립, 장식하기 위해 작업에 몰두하는 장인들의 열정과 헌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인들이 직접 작업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은은한 조명과 어깨 너머로 바라보는 듯한 카메라 앵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숙련된 손길을 담은 클로즈업 장면들을 통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통합 매뉴팩처는 모든 전문 기술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In the Making* 은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 등 최상의 타임피스를 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여 몇 가지 챕터로 선보입니다.

#### 디자인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형태, 크기, 스타일, 다이얼과 케이스 구성과 같은 미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컴플리케이션과 무브먼트 개발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품의 형태, 무브먼트의 전반적인 구조, 무브먼트를 장착해야 하는 케이스의 기술적 요구 사항, 모든 인체공학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적 요건들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종이와 연필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테크니컬 디자이너 및 무브먼트 제작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케치를 실제로 구현해 나갑니다. 인상적인 디자인은 정밀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테크니컬 디자인과 한치의 오차 없이 결합되었을 때 마침내 워치메이킹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 제작

*In the Making*은 제작 단계에서 "산업적" 단계로 여겨지는, 쉽게 접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기술적 측면을 심도 깊게 다룹니다. 각 과정을 마스터한 전문가들은 매뉴팩처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료들과 함께 높은 정밀도와 예술성을 지닌 공예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열정을 다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제작 과정은 메탈 소재에서 시작됩니다. 알맞은 방법으로 메탈 소재를 절단하고 스탬핑하거나 가공 처리한 후 구성품의 형태를 완성하고 무수히 많은 조립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 케이싱과 폴리싱 작업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랑 메종은 새로운 타임피스를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 복원 워크숍에서 40년, 60년 또는 90년도 훨씬 전에 제작된 시계를 원형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처음과 같은 제작 단계를 수행합니다. 복원 전문가들은 오리지널 예비 부품이 남아 있으면 해당 부품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 원본 및 형틀(메탈 스탬핑 템플릿)을 이용해 동일한 구성품을 제작합니다.

## 마감

케이스, 베젤, 러그 및 크라운과 같이 타임피스의 눈에 보이는 부분에 빛을 선사하는 폴리싱 장인은 마법과도 같은 기법으로 시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파인 위치는 겉모습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예거 르쿨트르의 신념에 따라 시계 무브먼트의 정교한 마감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장식 공정에도 세심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희소성과 가치가 높은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는 그 명성만큼이나 수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적용되는 마감 처리 기법은 페를라주, 꼬뜨 드 제네브, 블루 스크류, 챔퍼링과 스키텔론 등 전통 기술에서부터 마이크로 블라스팅과 같은 현대적인 마감 기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베벨링(앵글라주)은 테두리에 광택을 내고 빛을 효과적으로 반사시켜 구성품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장식 기법으로, 각종 메탈과 목재 도구를 이용해 내각의 수공 컷팅에서 핸드 폴리싱까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련 기술과 기법을 능숙하게 수행해야만 마감 단계에서 각도와 반사 효과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장식

예거 르쿨트르는 기요세, 인그레이빙, 쟈세팅, 다양한 에나멜 기법 등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장식 기술을 한 지붕 아래 모은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아틀리에를 운영하는 극소수의 위치메이커 중 한 곳입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그랑 퓨 에나멜은 연금술과 예술의 교차점에 있는 작품입니다. 인그레이빙 장인들은 다양한 기술과 각종 테크닉을 이용하여 메탈 표면에 섬세한 음영이 교차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패턴을 채워 넣습니다. 쟈세팅 장인들은 쟈스톤이 가장 아름답게 비춰지는 형태로 메탈에 보석을 세팅합니다. 시계에 이미 다른 장식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쟈세팅 장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밀함과 섬세함의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뉴팩처에서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노하우를 계승하면서 전담 아틀리에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창의적 에너지와 열정을 공유합니다.

##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In the Making* 은 8 가지 기술을 설명하는 8 개의 영상을 처음 공개한 뒤, 점차 더 많은 영상을 선보이며 통합 라이브러리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랑 메종은 가장 먼저 디자인: 미학과 스타일, 연구 & 개발, 폴리싱, 복원, 베벨링, 에나멜링, 인그레이빙 및 쟈세팅 관련 영상을 공개합니다.

---

####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 중의 워치메이커**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드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1833 년 설립)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